

탈북여성의 인권과 정체성

한양대 강사 이화진

연구목적 및 방법

- 문제제기
2000년 이후 탈북자의 이주민화, 여성화
불법적 탈북, 인권문제 발생 환경
 - 1) 타자화, 피해자 관점 - 주체적, 능동적 존재
 - 2) 여성인권 - 사적 영역에서 인권문제 고찰이 중요(결혼생활)
 - 3) 기존의 연구는 국가별로 구분되어 진행 되었으나 삶의 맥락성, 정체성의 변화가 중요
- 연구방법
 - 1) 심층면접 - 2003년 이후 입국한 탈북여성 11인
 - 2) 연구대상의 특징 - 자신의 의사로 입국, 북한, 중국, 한국에서 한 번 이상 결혼 경험

사례	나이	탈북 시기	입국시기	중국 체류 기간	혼인상태			중국 배우자와의 결혼 유지	비고
					북한	중국	한국		
1	33	2001	2004	3년	미혼	미혼	결혼(한국인)		현재 이혼
2	45	2003	2006	3년	결혼	결혼(한국인)	결혼	유지	
3	47	2005	2006	1달	남편사망 이후 독신				
4	34	2001	2006	5년	미혼	결혼(조선족)	결혼(조선족)	유지	
5	34	2004	2006	2년	결혼	결혼(조선족)	독신	이별	
6	32	2002	2006	4년	미혼	결혼(조선족)	결혼	유지	현재 이혼
7	33	2005	2008	3년	미혼	결혼(한족)	결혼(북한)	이별	
8	35	2003	2009	6년	결혼	결혼(한족)	결혼(한족)	유지	남편 초청중
9	44	2004	2008	4년	남편사망 이후 독신	결혼(한족)	결혼(한족)	유지	남편 초청중
10	46	2005	2009	3년	남편사망 이후 독신	결혼(한족)	결혼(북한)	이별	
11	45	2003	2007	2년	결혼	결혼(북한)	결혼(북한)	유지	

이론적 배경

- 여성인권과 가부장제
 - 인권의 보편성(근대 시민권에 기초)에 여성의 경험을 논하는 한계
 - 여성의 성차를 인정하는 인권개념 (이리가레이, 맥키년)
 - 여성의 관점을 추가하는 인권 (CEDAW 에 반영)
 - 가부장제를 이해는 사적경험의 의미를 공적 제도에 연계할 수 있음 (실비아 윌비, 거다 러너, Dorothy E. Smith)
- 여성의 정체성
 - 길리건(Carol Gilligan) 여성의 정체성 발달이론
 - 이기적- 과도기 - 희생적(이타적) -과도기 -관계지향적 정체성

탈북 여성의 북. 중. 한국에서의 결혼과 삶의 변화

북한 - 가부장적 삶과 빈곤

중국 - 안전을 위한 불안한 결혼

한국 - 신분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

*미혼
장사제한
가족의 생계보조

*기혼
생계담당
남편의 외도와 폭력
빈곤으로 인한 부부갈등

*독신
장사제한
생계담당

탈출 후 결혼

*친척없음 <
- 매매(혼)

저항 후 적응

결혼

*친척도움 - 취업 <
독신

아내의 지위변화

*중국에서의
결혼지속

이별

결혼
유지

환경변화,
문화적 차이

이별

*중국에서의
결혼 단절 - 새로운 만남

결혼
유지

탈북의 여성화와 북한에서의 인권

- 북한체제의 성별 통제방식 – 성별, 지역별차별
- 여성의 문제로 남겨진 생계문제
- 남성의 긴 군사복무
- 중국에서의 북한여성에 대한 수요-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 탈북 유인
- 근대국가의 가부장성+북한의 유교식 가부장제

북한은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부족합니다. 글썄 내가 느끼기에 약 5:1정도? (연구자: 아 들 낳으려고 딸을 많이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 그리고 기본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니까 결혼할 나이에 맞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지, 남자가 여자 얻기는 쉽지 만 여자는 남자 잡기가 어렵지 (연구자: 경제난 이후 더욱 그런가요?) 그렇지요, 경제난 이후에는 남자들이 거의 노임(월급)을 다 못 받으니까 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배급줄때야 뭐 시집하면 좋지~ 그러나 이젠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 시대니까 시집가는 걸 두려워하지, (연구자: 결혼을 위해 중국을 가기도 하나요?) 그렇지요, 우선 시집을 가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결혼하기가 힘드니까...(보조 사례1)

가부장적 제도 속 인권문제

- 남편(세대주)에 종속된 존재 – 세대주 중심의 식량배분과 처벌

고난의 행군 생활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남편의 과오로 인해가지고 18호 관리소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때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3살, 남편은 탄광에 배치 받고 남편범죄니까 그래 함께 그 관리소엘 들어갔지(...) 내가 그저 많이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짐승 길러 돼지 길러서 탄광에 바치고 그래서 2001년도에 탄광에서 5년 만에 해제 받았어요(...) 그런 찰나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니까나 뭐 우리는 남편 때문에 들어왔는데 근본 그 장본인이 사망했으니까 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도망칠 데가 어디 있어야지 그까나 그저 왔지요 그래 그저 차에 타고 덜렁덜렁 또 뭐 내가 저 아이를 두고 내가 이내 살겠다고 차라리 같이 죽던지 아니면 따라가던지 자식 때문에 더 마음을 어떻게 모질게 하지 못하겠더라 말예요. (연구자 :아이들을 위해서 도망칠 생각은 안하셨나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들이닥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지금 갈아서야 백번 천 번 뛰지 뭐 관리소 생활이랑 했으니까 그때는 그저 고지식하게 살아왔으니까 (사례10)

결혼생활은 정말 참담했어요. 안 싸운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 싸웠어요 매일 치고받고 ... 남자가 직장생활을 제대로 안해서 ..불성실했지 애기 낳고 살면 그게 고쳐질까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맨날 무단결근하니까 무단결근 세 번하면 신용 잘리고 맨날 일을 안 나가니까 온 식구가 배급을 다 못타는 거예요. 보름배급을 타야 하는데 그 쌀 표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가정적인 남자가 아닌 거지.(...) 그래 내가 결혼하고도 일을 했죠 야가 가정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했어요. 시내에 시집가서도 일부러 시내에 사는 주변 농장에 있었으니까 ...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부양가족으로 불 잡아요 그런데 그걸 (따로)떼어가지고 수속을 해가지고 농장에 갈다 들이 밀은 거야요 그게 힘든데 나는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애들 둘이 날마다 신랑 때문에 배급이 찢리는 거야요 얼마나 불쌍해?.. 저놈(남편) 하고 살면서 6년 결혼생활이 완전히 피눈물을 흘리는 생활이었다니까요...(사례2)

결혼연령 규제로 인한 낙태

- 우리 때는 그 세대는 남자는 30살 여자는 28에 결혼을 해야지 그 나이 전에 결혼을 하면은 사로청에서 비판하고 그랬어요. (사례10)
- 내가 집을 뛰쳐나와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게 법에 되게 어긋나요 결혼등록은 26이 되어야만 하고 만일 내가 임신이 돼서 배가 이렇게 나왔다면 24살부터는 그때는 결혼등록 해줘요. 그건 너무 할 수없이 인생에 이 여자는 막바지다 그러고 해줘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 아를 열 번을 떼었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고리(루프) 엮는다(넣는다). 북한에는 약이 없었으니까. 피임에 대한 생각이 여자도 없어요. 남자한테 물을 밖에 쏘라고 해도 소용없고 (...). 이달에 소파했는데 생리도 하기 전에 또 임신이 되고 또 소파하고 또 소파하고 난 지금까지 12번 했어요. (사례8)

성별, 결혼유무에 따른 경제활동 이혼의 어려움

- 나이 많은 기혼여성만 장사허용 – 부업으로 인식, 유희노동력.
- 독신여성이 최대의 피해자

내가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남편이 사망 후) 내가 세대주니까 나가서 일하라는 기지 장사하지 말고 근데 장사아이하고 애들까지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장사했지 그때는 한번 안 나가면 분주소에서 부르지 그래 계속 안 나가면 노동단련대에 보낸단 말예요.(연구자: 그래서 괜찮았나요?) 모르지 그거 한참 단속하기 시작하고 나는 나와 버렸지. (사례3)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인권문제

- 남편의 외도와 폭력 - 성별위계, 군사문화, 선군정치
- 수동적 성관계-남녀 간의 연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순결과 정숙한 여성상을 중요

북한은 그저 그런거 없었어요 여자는 눕고 남자가 하고 물만 버리면 관계는 끝이다. 성행위에 대해서 난 생각한 게 없어요. 그전에 생각하건데는 어렸을 때 니까 아프다 했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지. 사흘에 한번 근데 나는 나흘에 한 번씩 이렇게 사정도 해보고 하는데 남자라는 게 뭐 참아요? 이틀만 되면 또 하고 그러며 지나가메 해도 난 되게 괴롭더라구요. 그 순간 강... (사례 8)

(연구자 :성관계는 어땠어?) 아 몰랐어요. 여자는 그저 가만히 누워서 있는 건 줄만 알았어요. 오빠(남편)를 만나서 비디오 봤어요. 연길에서 그전에는 진짜 못 봤어요. 한국영화를 보면 그냥 키스하는 거 그런 거만 나오잖아요. 오빠를 만나면서 오빠가 가져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했지 내 친구들 그런 애들 많아요. 여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다 그런건가부다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달라졌지 좋다 싫다 그런 말은 좀했지 좀 더 적극적 이라든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만은 않았지. (사례4)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전통적 여성역할 수용
- 탈북 – 빈곤탈출, 이혼의 수단

내가 일하는 현장에 와서 이런 거랑 (일하는 도구들) 재뿌리미 망신주 겠다는 거예요 나를 (연구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나요?) 그렇 지요 우리가 나이 어리고 아가씨 때고 그런 얘기가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막 진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라고 해도 그게 조건이 돼서 다 른 남자에게 가지도 못하고 좋은 대로도 못가고 이랬어요 그때는 그랬 어요 깨지 못해서 (웃음) 지금 생각만 해도 거기 별나지 않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사례9)

중국에서의 구조적 인권침해

- 강제송환, 폭력, 감금, 위축된 삶

처음에는 단련대라는거 있어요 거길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그랬는데 감옥이라는게 담장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맨날 담장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난 아이들 보고 싶어 헤매고 그렇게 뭐 내가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에 진짜 오히려 교양 개조되어서 나가는게 아니고 막 반발심이 생기더라구요. 이럴 바에는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 맘먹었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처음엔 아이들 안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구요. 아예 마음이 싹 바뀌더라구요 이게 아니구나.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례 11)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은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 좀 똑똑하지 못하지. 그냥 아주 어지고(둔하고 아이 같음) 세상에 대한 그런 게 오직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거 같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능력이 완전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가 그 집에서 1년 살았나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는 꼭 살자 마음먹었어요. 근데 여기(손등) 아직도 칼 뒤쪽에 맞아서 흉터가 있는데 딱 남자한테 내가 맞은 거예요 한애가 우리 집에 잘 다녔어요 그러다 개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니까 우리 집에 잘 다녔으니까 그 신랑이 와서 어딘가에 빼돌렸다 그러다 내가 아니라고 말대꾸 했어요. 말대꾸 하니까 나를 발로 빵 차더니 들고 있던 칼등으로 머리를 탕 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내 머리를 또 탕 치는 거예요. 그걸 글썩 그 멀쩡한 남자가 보고 있으면서 딱 서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나를 지켜줄 힘도 없는 남자한테... (사례4)

여기서는 호구가 있어도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게 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북한 이야기할 수 없죠...누구하고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없죠. 내 신분을 항상 밝히지 않고 다른 사생활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신분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하죠 그건 철저히하게.(사례1)

조선족 깡패들이 날마다 와서 (행패 부리고) 또 옆집에서는 내가 북한여자라고 꼬장(신고)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야 장사 못하겠다' 하고는 문닫고는 결혼 수속해보자 이렇게 까지 해서 한국 못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사례2)

한번은 신랑이 나간 다음에 죽으려고 수면제를 딱 먹은 거예요 수면제를 모아서 이만큼을 그냥 다 먹었는데 신랑이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왔는데 내가 탁 쓰러져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위세척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대요. 나 그 생각이 안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신랑이 막 밥도 떠먹여주고 내가 앉아서 멀쩡히 눈뜨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살아났지 신랑 때문에 그 다음에 쥐약 먹고 옷 벗고서리 언제 죽으려나 하고 삼십초 일분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갑자기 귀가 막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열이 확 양쪽에서 오르면서 증상이 현대 아시죠 (연구자 :뭔대?) 피부병 (부스럼의 일종) 그런 게 나면서 그 거칠거칠하게...(사례4)

가족관계 안에서의 인권침해

- 강제결혼

- 중국의 산업화와 조선족사회의 변화, 북한의 경제난과 성별위계문화로 북한여성의 수요발생.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확대

결국엔 다 짜고 나를 속였죠. 심양까지 딱 가더라구요. 조선족 부부가 나 하나를 데리고, 심양에서 한족 부부가 나를 맞이하더라구. 처음엔 길이 돌아가느라고 그러나 했는데 (...) 그래 심양에서 한족부부에게로 넘겨졌어요. 그 부부가 나를 심양까지 호송하는데 처음에 떠날 때는 벌써 착각(예감) 있잖아요.(...)그담에는 에~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돌아서서 사정했어요 '아저씨 날 팔아먹을려구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근데 조선족이니 말이 통하니까 그래 너도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위아래 텅없는 사람도 아닌데 팔자 그렇다...(...) '중국말 아냐 그럼 중국에 와 본일 있냐' 그래 모른다 했어요. 그러면 '너 아무데 가서 누구라도 판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한 시간 가면 심양이다 한족에게 보내준다 잘 생각해보라 너 정도면 도망치고 어디가도 연길은 더 못 배겨 시내는 더 못 배겨 말을 모르고 앞뒤분간 못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나가더라구 여관인데 나 혼자 (생각하니) 그 말도 맞아 이왕이면 팔려 가자, 잠을 자려니 잠이 안오더라구 (사례8)

원치 않는 성관계와 출산

- **여성의 경험의 의미**

: 현재의 시선으로 걸러지는 기억, 사회구조와 권력에 대한 저항지점 발견

- 첫날부터 안 잤어 버티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21살이잖아요 내가 거의 22살까지 그때까지 생리도 안하고 가슴도 없었어요. 비행장이었어요. 그게 중국에 와서 잘 먹으니까 가슴도 요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휴~~ 너 15살 아니냐' 이랬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들 엄마가 아들을 불러낸단 말예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눈치가 그런 거 같아요. 잤냐 안 잤냐 그런 말 같아요. 나보고 종이 같은 거 뭉쳐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물어요. (...) 너 자꾸 이러면 위협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그런데 내가 있잖아요. 아휴~ 근데(오래 동안 울먹임) 언니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뭐가 억울하냐면 그래도 내 첫 경험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이 아니라도 단순하게 섹스라도 내가 좋아서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는데 진짜 꿈에 나타나도 악몽인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걸 바친다는 게 내가 억울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진짜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지. 요즘도 계속 악몽 꾀다니니까요 지금도(...)나는 매일매일 노력하거든요 음악 같은 거 많이 듣고 (...)잊어야지~ (사례4)
- 중국에서 여러 번 거치진 않았는데 그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했는데 가는 첫날부터 그저 성생활이지, 한쪽들이라는 게. 그저 막 폭행은 안하는데 그것(성관계)만은 무조건(요구하지) 난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폭행이라고 생각해요. 싫다고 해도 무조건 업대서(업드려서) 비는데 잠도 안 재우고 차라리 때리는 거 보다 못하지. 11시 자기 시작해서 온밤 세 번을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데) 사람이 견뎌요? 울다 울다.(...)성생활이 어찌나 센지 그게 무섭더라구요. 매일 밤 달기는거 (달려드는 거) 그게 힘들더라구요. 나중에는 살기 싫더라구요. 내 배안에 아이 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 뭐하냐...(사례8)

애를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았지, 아니면 도망쳐서 청도나 대련 쪽으로 달아났지 뭐, 바보같이 아이 낳아서, 아이 생겨서 지워야 되는데 어쩌다 진짜 난생처음 생긴 아인데 지울 수 없더라구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좋아했어요. 낳아라 하지모, 지네 후대는 남길라고 좋아라 하지. (사례6)

그런데 내보다 후에 온 조선(북한) 여자들이 다 아이 낳고 손목 쥐고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우리는 아이 없으니까 (...) 다른 사람들은 아이 있고 뭐 어쩌고 나이 있으니까 제 새끼 있어야 된다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꾸 싸움을 시작했어요. 애기 없으니까 아휴~ 그 답에는 가만히 그저 생각했지 생각해보면 우리 신랑이 불쌍해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정말로 잘해주고 이러니까 막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조선(북한)에 잡혀나가서 못 들어오는 경우 그럼 이 사람에게 새끼라도 하나 떨구어 놔야 그 새끼라도 보고 살지, 내가 너무나도 양심 없는 생각에 내 절로 자책이 들어서 그래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울먹임) 또 그 애를 괜히 낳아가지고.(사례9)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결혼수용- 저항, 협상, 탈출

(처음 팔려간곳은 어땠어?) 그때 2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친 거지 침에 마침 거기 그 동네에 북한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언니 땀에 탈출한 거지 나보다 13살 많나? 내가 그때 20대였는데 언니가 30살 넘었으니까 그 언니가 도와준 거지 그래 같이 도망친 거지 (...)내가 돈이 있어요 뭐 어디로 튀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이 개고기 장사하는 집인데 그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한쪽들이 많지 흑룡강성인데 그 언니가 조선말을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지 그 언니네 집에 놀러가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짰지 12까지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꼭 제시간에 왔지 그래서 예가 나가면 약속을 꼭 지키는구나 하고 안심을 시켰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튕 거지 (사례4)

그래 거기서 죽게 맞고 집에 들어와서는 온밤 자지 않고 그저 그 새끼를 막 뜯어냈어요. 그쪽에는 사람 많으니까 때리지 못하고 자지 않고 둘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 내한테 막 뜯어놓고 꼬집어놓고 막 긁어놓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조선에 가겠다 그런데 조선(북한)에 안보내지 자기네가 돈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는데 가겠다 그런데 보내 달라 그랬어요. (...)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 아줌마가 나를 다른 데로 팔았지. 난 이런데서 못살겠다. 난 조선에 가겠다 난 엄마 보고 싶고 애들 보고 싶어 못 살겠다 그래서 막 개지랄 쓰고 울고불고 막 이리미 그랬어요 (사례9)

적극적 적응

- 남편신뢰하기(정붙이기), 적극적인 언어습득
: 북한의 생활과 비교(가족문화, 식량문제)

(연구자 :신랑과의 첫 경험은 어땠어?) 난 침에 무서웠죠. (...) 그저 도망친단 생각뿐이었는데.. 근데 가가 물어보더라구요 엄마하고 잘래? 자기하고 잘래? 그래서 그 시아바이가 시킨 거 같아요. 침 와서 물어보라 만약 너를 싫다면 어찌겠는가 그래서 약간 관찮은 사람이구나 했지.(...) (연구자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계기는?) 근데 야가 다른 남편은 모르겠는데 내가 석 달 지나고 나한테 재산을 모두 나한테 맡기더라구요 그 돈이랑 재산을 그래서 물어봤지 도망칠까봐 무섭지 않나 했더니 나를 믿는다 하더라구요 나 믿고 다 맡기는데 (...)그래서 도망 못 친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하루하루 정붙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례7)

2005년도에 우리 둘째딸 데리고 왔지 그것도 우리 신랑이 저 연변 쪽에 나가서 데리고 왔지. 나를 데려가면 붙잡힐 수 있으니까 (...) 우리 딸 데려다주었으니까 신랑이 엄청 고마웠죠. (...) 그러니까 우선첫째 먹을 것이 흔하니까 씹할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저 돈이 없으니까 서로서로 니뭇버는가 하는데(...) 그리고 신랑이 먼저 일어나서 불때주고 무슨 아프다하면 밥도 하고 북한남자들은 뭐 어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나 치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돈 일전 한 푼 못 벌면서 그저 같이 한 가정에서 산다면 서로 받들메 부족한 것도 메워주고 이래야 하는데 북한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중국남자들은 마누라를 허(귀하게 여기고)하고 그러는데 뭐 씹할 일이 없죠. (사례9)

(연구자 :중국말은 어떻게 배웠어?) 가서부터 배워야겠다 했어요. 말을 배워야 도망을 치니까, 그래 나는 그 집에 가서 침에 텔레비 있잖아요? 조그만 거 흑백 티비 그거 앞에다 놓고 마주하면서 그 글 나오잖아요. 글 나오는거 보고 배끼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자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간단한 거는 서너 달 지나니까 다되더라구요. 도망치자 생각하고 배우니까 더 긴장해서 빨리 배운 거 같아요.(사례7)

돈 벌기

- 돈 벌기 -북한에 송금, 소외감 극복을 위해

내가 건너갈 때부터 혼자 잘살자고 여기 온 게 아니니까 돈 벌어서 어떻게든 북한에 보내주자 그걸 그저 목표로 했지. 난 그래서 계속 같이 시내에 따라 나가서 일했어요. 매일 같이 둘이서 그리고 그 후에 몰래 좀 더 많이 저축해서 북한에 보내줬지(...) 돈 생기면 안 쓰고 모아서 은행에 맡기지 않으면 그냥 모아두고 그때는 내가 살림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집 언제 사나 그런 생각 안하고 돈만 있으면 그저 북한에 보내주자 그 생각만 했죠. 지금 와서 그 생각하면 그저 미안하지. 이 집에서 영원히 살지 말자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늘 그저 너는 니 집이 있고 니땅이 있으니까 굶어죽진 않잖나 그런 생각에 그저 돈만 있으면 그저 북한가족생각이 우선이었지. (사례7)

국정원에서도 나 안 붙었어요 인신매매 했어요. 우리 거기는 남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이 북한 애 들끼리 선 놓다보니까 나를 팔아 달라 좋은 자리 해 달라 그래서 (...) 도망치겠다 하는 건 로반(주인)에게 말해요. 그럼 애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 중국에 좀 깡패 둘을 잡아가지고 해 달라 여자 좀 소개 해 달라 그래 (...) 두 번째 22살 자리 아를 게는 신랑이 52살 이래 팔려와 사는 게 애까지 둘 낳고 근데 못살겠다, 자기 이제 스무 살에 와서 자기 인생 다시 찾겠다는 거지 (...) (연구자 :자기가 첨에 팔려왔던 생각 안했어?) 그때는 그 생각 못하고 제일 첨에 생각한건 나부터 살아야겠다 무지막지한 세상에 와서 차라리 사람 죽이는 것 보단 낫지 이런 생각 악이 막 생겨 .. (...) 둘은 한 달 있다 도망가겠다 약속했는데 이틀 있다 나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돈을 토했다니까 (...) 그 담부터 손을 뗐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내 국경 넘을 때보다 더 마음 조이더라구요 (...) 넘 위험한 일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구 (...) 그담부터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시내 나가 아가씨질(성매매) 할까... (사례8)

한국행

- 중국남편 설득 혹은 몰래 도망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나는 말하고 왔어요. 처음엔 안 된다, 남편이 안 된다 하고 차라리 도시에 나가서 살자했어요. 시내에 나가서 돈 벌자 하더라구요. 애는 시골에 두고 나가서 살자 하더라구요. (...) 근데 내가 일주일 지난 담부터 심술 부렸어요 너 그렇게 안 한다면 내 도망치겠다, 그러니 자기 죽겠다는 거지 그래 죽어라 북한에 있는 그 새끼도 내하고 갈라서면 죽겠다 하더니 내 여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듣고 그럼 내가 중국 국적 해달라 내가 당당한 국적이 있으면 내 소리치매 장사하고 회사까지 꾸릴게 그 다음에 아예 그리니까 아~ 이 사람도 생각 있겠지 안 되겠구나 못 말리겠구나 이래도 뛰고 저래도 뛸 걸... 한 닷새 저녁마다 이불 차고 옆에 오면 발로 차고 이리니까 5일되니까 그담부터 수그러들더라구 가라구, 대신에 자기를 꼭 버리지 말구 하면서 울더라구요(사례8)

이 언니가 오라 중국에서 어찌 살겠나(...) 여기 오게 되면 신랑도 국제결혼해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담에는 우리 신랑하고 그 집 딸이 중국에서 살아서 중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전화를 연결시켜줬어요. 중국말로 한국 이란데가 이란데 여기 올수 있다 이렇게 해라 보내라 내가 무턱대고 젓 먹는 애기하고 우리 딸을 데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떠나고 (나중에 초청하는 걸로) 우리 신랑 설득하는데 석 달 걸렸어요. 우리 신랑이 맘이 약하니까 겨우 반승낙 했어요. 그리고 그담엔 여기서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사례9)

한국에서의 사회적 차별과 적응

- 중국남편과의 관계
: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부적응

(연구자 :남편 데려오는 것에 대한 갈등은 언제부터였나요?) 국정원에서도 마음이 꺾겼어요. 국정원에서는 데려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한족새끼 뭐가 좋냐 그 떴놈 그 나쁜 놈들' 그래, 내 '어~ 그래도 모르는 말씀이지 우리 동거남은 사람이 괜찮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한국사회 나가서 한 달 동안 사회 물먹고 잘 생각해봐' 하더라구요 마지막까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 나는 중국 동거남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만들 때 나중에 결국 이혼을 안 해주고, '한국에 나가서 한국남자하고 살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한 애들은 다 삭제해줬어요.(...) 우리기수에도 거짓말한기 몇이 되고 날보고 왜 바보같이 거짓말 안했냐고... (사례8)

신랑은 무거운 거 못 들고 일도 잘 못해요. 그래도 아가 있으니까 데려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보내 줘야 되니까 아가 굶어죽게 생겼으니 뭐 어찌겠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데려왔지 신랑은 한국 가고 싶다했지,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많아 제할 일 있단대요? 그래 모 데려왔지 (사례6)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가부장적 차별

- 북한여성이라는 적대감 + 가난

막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마구 꺼내고 뒤지고 하면서 나보고 글썩 너 간첩아니냐구 이러는 거예요, 너 니네식구들과 연락해, 안 해! 지금까지 북한에 있는 식구들과 연락하고 지냄 간첩인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간첩이면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구 했어요. 그때는 뭐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들더라구요. 그러더니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이애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나고 자기 조카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강제로 뺏기고 셋이서 함께 달려들어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고 며칠 후에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사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막 흥분하더라구요. (사례1)

형제들이 조선족을 만나지 왜 북한여자를 만나냐... 우리 신랑은 나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조선족이 낫다는 거지 북한여자하고 만나면 형 잡혀가면 어쩔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잡아가면 나나 잡아가지. (...) 나도 우여곡절 많았지. 그랬는데 우리 신랑하고 살면서 형제들이 나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안 사줬어요. 그런 인간들이야~~ 북한여자는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빨갱이라고', 왜 북한여자를 만나서 사냐고 차라리 조선족하고 살지 계급도 틀린 사람하고 산다고 그니까 적대국이잖아요. 잡혀나가면 어떻하냐구. 말도 안 되지 (남편은)한국 사람인데 (사례2)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응

- 수동적 태도

침에 북한에 있을 때처럼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남편이 틀린 말해도 응 당신 말이 맞어 당신 말에 따라줄게 이런 식으로 남편 말에 따르고 그랬는데(...) 옛날부터 내가 베푼 거 만큼 받는다잖아요 그 생각만 하고 순종하고 산거예요 내가 시부모한테 효도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돌아오겠지...(사례1)

-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연구자 :남편 데려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야?) 애기죠 그 자식이 없으면 솔직히 무슨 뭐 부부간이야 뭐 남이지 데려다 뭐하겠어요? 조선말도 모르지 (...) 우리 신랑은 일은 잘해요 근면하고 착실하지 아휴~ 그러니까 데려와야지 (...) 만일 한국남자랑 살게 되면)애를 중국에 하나 북한에 하나 한국에 하나 새끼를 사석에 다 넣어 놓구... 아~ 이것도 아니다 죽을 먹더라도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수다. 이제 내가 마흔 살 넘어서 한국남자 만나 살면 글썄, 부유하게 산다 한들 자식을 거기다 두고 마음이 쓸리고 신경이 쓸리고 내가 병이 나지 않겠는가, 차라리 돈을 못 쓰더라도 화목하게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고생스럽대도 난 데려 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다음부터 그런(데려오지 말라는 의견)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례9)

상처치유와 갈등극복, 이혼

- 자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
- 우리 신랑은 내가 배신 때리지 못하고 하니까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살긴 살지요. 내가 너무 돈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신랑하고 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신랑을 배신 때리면 나 자신도 죄를 만나고 신랑이 노력해서 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신랑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못 왔지 삼국을 거쳐서 오거나 했지.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보는 게 많고 남자들도 저울질해보고 사람을 내가 많이 상대해요. 신랑도 요렇게 저울질도 해보고 그러지. 나 좋아하는 남자도 하나 있었어요. 맨날 좀 그런 사람들이 날 꼬시려고 했지만 내가 우리 신랑은 못 버리죠. 의리가 있지. (사례2)
- 신랑과는 아주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제는 살기 싫어요 막 신랑이 귀찮아요. 혼자 먹을 제 밥벌이도 못하니까, 공장에 일자리를 해 줬는데 며칠 하다가는 그만두었어요. 허리 장애가 있어요 (...) 난 여기 와서 벌 줄 알았는데 못 벌어요. 난 이제 신경이 돌 거 같아요. 뭐 취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취소하고 싶어요. (데려온 것이) 후회 되요. 이혼도 안 되고, 신랑은 보기 싫고, 나도 한편으론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닌데 의리도 있고 해서 데려온 건데, 거의 다 후회하는 거 같아요. 전에 한번 일자리 소개해줬는데 일주일도 못 버티고, 처음엔 다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그다음부터는 저래(아예) 싹 내 쫓고 서리 (...) 아이가 있어서 데려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참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그러니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6)

인권침해와 결혼생활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한국에서의 결혼 상태와 중국남편과의 관계로 본 유형

결혼상태 \ 중국남편	유지	단절
결혼(동거, 남편 초청 중 포함)	유형1 (사례2, 4, 8, 9, 11)	유형2 (사례7, 10)
독신	유형3 (사례6)	유형4 (사례5, 1, 3)

정체성 변화단계

- **이기적 의존 단계(1단계)**

결혼생활과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노력하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 주로 남성에게 의존

- **희생적 단계(2단계)**

배우자의 태도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자신이 참고 희생.

- **주체적 자아성찰 단계(3단계)**

결혼생활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지냈으나 더 이상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을 존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

사례2 의 경험과태도의 변화과정

이동경로	북한	탈북 동기	중국	한국행 동기	한국
경험	기혼, 남편의 무 능과 외도, 별거	돈 벌기 위해	친척도움으로 취업, 임금차별, 한국남성 과 결혼	불안한 신분	시댁의 무시, 남 편의 가족과 갈 등, 결혼유지
반응	의존 - 갈등 - 별 거		한국행 위해 남성에 게 의존		순종 이후 갈등
변화 과정	1_		1_____		
	2_		2_____		
	3_		3_____		

혼인상태별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변화 유형

혼인 여부 \ 태도	의존적	희생(갈등)적	주체적
독신	사례5	없음	사례 1, 3, 6
결혼(동거, 남편 초 청중 포함)	사례7, 10	사례2, 4, 11,	사례 8, 9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각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 1) 북한, 중국, 한국의 가족문화와 사회구조 영향
 - 2) 한국입국 이후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향.
- 결혼생활을 통한 경험 : 남편의 경제력과 국적
 - 1)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다른 사회구조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
 - 2)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도와 정체성이 변화

결론 및 제언

- 탈북여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필요 – 인식개선, 지원제도 보완
- 연구의 의미 - 공간적 경험과 개인의 정체성 변화를 함께 고찰
- 개인사적 맥락에서 여성의 주체성 발견 – 정착의 기준을 삼는데 중요
-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타자화 지양)